

2011.03.21 미래정책연구실

□ 중국, 2월 물가상승률 4.9% 기록

1. FinancialTimes(2011.03.11), NewYorkTimes(2011.03.10) 주요 내용

- 중국 국가통계국은 2월 소비자물가지수(CPI)가 식료품 가격 상승 등으로 작년 동기대비 4.9% 상승했다고 밝혔으며, 이는 중국 당국의 올해 목표치인 4%를 훨씬 초과한 수준임.
 - 지난 1월 10.3%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물가상승을 견인했던 식료품 가격이 2월에도 작년 동기보다 11% 이상 올라 물가상승을 주도함.
 - ※ 식료품 가격 급등은 최근 중국내 가뭄에 의한 곡물 작황부진, 국제곡물가격 상승 등 국내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임.
- 지역별로는 도시지역 물가상승률이 4.8%로 1월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지만, 농촌지역의 물가상승률은 5.5%로 1월(5.2%)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냄.
 - 항목별로는 식품물가가 11.0%, 비식품물가가 2.3% 상승
- 한편, 2월 생산자물가지수(PPI) 상승률은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1월보다 0.6%p 오른 7.2%를 기록함.
- 원자재로 중국 총리는 “물가 상승이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특히, 소득의 50% 이상을 식료품 구입에 지출하는 저소득계층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”고 언급하면서 올해 물가 상승률을 4% 수준으로 억제할 것이라고 발표함.
- 또한, 저우샤오촨(Zhou Xiaochuan) 중국 인민은행 총재는 소비자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“환율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”라고 언급하면서 물가 억제책으로 금리 인상의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시사함.
 - 중국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작년 10월 이후 3번의 금리 인상 조치를 취하는 등 물가 안정을 올해 최대 국정 과제로 삼은 상태임.

- 증권투자 전문가인 Zhang Xinfa는 3월 CPI 상승률이 5%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봄.
 - 더욱이 중동 산유국의 정세 혼란, 고유가, 달러화 약세 등은 물가상승 압박을 더욱 가중시킬 것임.
- 전문가들은 정부의 금리인상 정책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시차를 감안할 경우,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금년 상반기까지 6% 가까이 오른 후, 하반기부터는 4%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봄.
 -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물가억제 정책을 활용하고 있지만, 전 세계적인 식품 물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세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.

<중국 인플레이션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 전문가 및 기관들의 견해>

□ 부정적 견해

- (한국은행) 대중국 수입의존도 높아 중국 물가 상승의 영향이 큼. 또한 국내 제품과 기존수입품이 저가의 중국산으로 대체되는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워 중국의 인플레이션 확대는 국내 물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
 - 중국 인플레이션이 1%p 오를 경우, 우리나라 수입물가 0.64%p, 소비자물가 0.06%p 상승
- (삼성경제연구소) 중국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현상은 중국내 인건비와 수출품 가격을 상승시켜 국내 중국산 수입품 가격과 국내 물가 상승 견인
 - 중국 소비자물가가 1%p 오를 경우, 우리나라 생산자물가 최대 0.11%p, 소비자물가 0.04%p 상승
 - 중국 국내총생산이 1%p 하락할 경우, 한국의 총 수출규모는 0.72% 감소
- (산업은행) 중국의 인플레이 억제를 위한 금리인상과 긴축기조는 단기적으로 국내 물가상승의 압박으로 작용. 중국에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도 대중수출 감소 등의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
 - 단,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자산버블과 인플레이션 압력감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한국

경제에도 China risk를 감소시켜 경제협력 강화의 기회가 될 것으로 분석

□ 국내 물가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는 견해

- (지만수: 동아대 교수) 수입물가를 직접 결정하는 것은 환율이며, 중국내 물가보다는 중국 위안화와 한국 원화의 상대 환율 변화가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
 - 최근 중국의 위안화의 절상속도가 아주 완만하고 앞으로도 현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한국의 수입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
- (익명: 국제경제학자) 중국이 최근 경제위기 이후 보여준 경제정책들의 수준을 볼 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임. 또한 국내에서도 물가가 정권안보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물가고를 최대한 억제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으로 보임.

※ 출처: 연합뉴스, 2011. 03. 14

자료작성: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